

# 짙어진 친문 색채...개혁정책 고삐 죄고 쇠신 드라이브

## 청와대 2기 참모진 출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단행하는 청와대 2기 참모진 인선의 특징은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전진배치를 통한 '친정체제' 강화로 요약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와 강기정 정무수석 내정자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이번 인선에 포함된 윤도환 국민소통수석 내정자는 전문가 그룹으로 분류되지만, '노영민 비서실'은 '임종석 비서실'보다 친문 색채가 짙어지리라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자신의 의중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진을 내세워 핵심 있게 개혁을 관철한다는 것이다.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며 각종 개혁과제가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문 대통령의 용인술이라고 할 수 있다.

노 내정자와 강 내정자가 19대 국회 때부터 문 대통령과 함께한 '정치적 동지'라는 점에서 강력한 정책 집행 및 개혁과제 추진의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공직기강 해이 논란과 특별감찰반 사태 등으로 청와대 안팎이 어수선한 점 역시 인선 배경으로 꼽힌다.

연초 강력한 인적 개편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개혁정책은 물론 민생·경제 정책에서 성과를 거둬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내정자의 경우, 주중 대사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지낸 외교는 물론 산업정책에 조예가 깊고, 강 내정자는 3선 중진의원 출신이라는 점, 윤 내정자는 언론계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정자들의 전문성을 살린 실용적 인선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선은 문 대통령이 2020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참모진에게 길을 터주는 의미도 가진다.

## 새 비서실장·정무수석

## 문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

## 집권 3년차 국정동력 확보

당장 재선 의원 출신인 임 실장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나 중구 등에 출마표를 던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며, 17대 의원을 지낸 한병도 정무수석 역시 총선 도전이 유력시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경기 성남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리라는 관측도 동시에 나온다. 이와 맞물려 청와대 내 출마 희망자를 중심으로 비서관급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내달 2~6일 설 연휴 전후에 일부 부처 장관들을 교체하며 인적 쇄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역시 내년 총선이 주요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출신 장관인 동시에 문재인정부 초대 장관인 김부겸 행정안전·도종환 문화체육관광·김현미 국토교통,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만큼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인사쇄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및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인선을 설 전후에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정외용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될 경우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그 자리로 이동할 수 있으리라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복미정 상회담 등 변수가 많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이 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학생·노동운동 출신 3선 지낸 '원조 친문'

###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문재인정부 2기 청와대 참모진을 끌고 갈 신임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노영민 주중대사는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원조 친문(親文)' 인사로 꼽힌다. 대선 국면에 영입된 임종석 비서실장이 '신(新) 친문'으로 불린 것과 달리, 노 내정자는 2012년 대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비서실장을 맡은 뒤 2017년 대선 때까지 줄곧 가장 가까이서 문 대통령을 보좌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더불어민주당 2·8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라디오 토크회에서 '주요 정치현안을 누구와 상의하나'는 질문을 받고 "노영민 의원과 상의한다"고 답한 일도 있다.

노 내정자는 19대 국회에서 '문지기(문재인을 지키는 모임)'를 비롯해 '문간방', '달개비' 등 의원 모임을 주도하며 당 내에서 문 대통령의 기반을 다졌다.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당선된 뒤에는 노 내정자가 초대 비서실장을 맡았으며, 결국 노 내정자도 유력하게 제기됐으나, 결국 노 내정자는 임 실장에게 돌아갔다. 그해 10월에는 주중대사로 임명돼 출국, 지난해 해부터 본격화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한중관계 조율에 힘을 쏟았다.

노 내정자는 친문 핵심인사로 2015년 민주당이 계파 갈등을 겪을 때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대인관계에서는 온화

하다는 평을 받는 데다 여의도에서의 경험 이 풍부해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번진다.

1999년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민주당 소속으로 17~19대 국회에서 내리 3선을 지내며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 계열의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에서 사무총장을 맡는 등 당내 기반을 닦았다. 2011년 김진표 원내대표 시절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여야 간 협상 최일선에 섰다. 1977년 연세대 재학시절 유신독재에 항거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는 등 학생운동권 출신이지만 1980년대 들어서는 공장과 건설현장 등을 찾아가 노동운동을 했고, 특히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19대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드물게 시인 겸 작가로도 활동했다. 하지만, 2015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산업위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점은 상처로 남았다. 배우자 최영분 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충북 청주(62) ▲연세대 경영학과 ▲열린우리당 사무부총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조직본부장 ▲주중대사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학생운동 옥고·3선...정치권 대표 '86그룹'

###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세 번째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강기정 전 의원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대표적인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정치인이다.

전남대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3년 7개월간 투옥의 아픔을 겪었으며, 출소 후 광주를 기반으로 청년·시민 활동을 펼쳤다. 2000년 총선과 2002년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무소속으로 광주 북갑에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같은 지역에 출마, 당시 거물인 민주당 김상현 전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을 했다. 2008년에는 당시 정세균 전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등 범주류로 꼽혔다.

2012년 6·9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됐고, 이듬해 5·4 전대에서 당권에 도전했으나 중도에 하차했다. 2015~2016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이때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문(비문재인) 진영의 공세를 막아내며 친문(친문재인)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20대 총선 당시 공천에서 배제되는 아픔을 맛봤다. 이후 독일 베를린에서 연수하다 탄핵정국이 한창이던 2017

년 설 연휴 직전에 귀국, 문재인 대선캠프 중앙선거대책본부 총괄수석부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2017년 11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사퇴했을 당시에는 후임 정무수석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 출마해 세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냈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국회 의원 당시 독심하는 소신으로 당내 '개혁파'로 불렸지만, 뜻이 맞는 상대 당 의원들과는 '목욕탕 이야기' 등으로 거리감 없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친화력을 보여왔다.

공무원 연금문제를 비롯한 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특히, 5·18 진상규명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의 국가기념곡 지정 등 지역의 현안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목소리를 높여 왔다. 2013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가보훈처가 33주년 5·18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식순에서 배제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독창하기도 했다. 부인 유귀숙 여사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전남 고흥(55) ▲광주 대동고 ▲전남대 전기공학과 ▲전남대 삼민투 위원장 ▲민주당 대표비서실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총괄수석부본부장 ▲17·18·19대 국회의원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임종석, 총선 출마냐 입각이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0개월간의 비서실장직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가운데 차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임 실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다. 의정활동 경험에 힘입은 정부 감각과 정책조정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격의 없는 소통과 탈권위의 청와대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음에도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가 큰 잡음을 일으키지 않고 안착할 수 있었던 데는 임 실장의 공이 컸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다만, '86그룹'의 선두주자

격이자 인지도 높은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이 맞물려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야권의 비판과 견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비서실장 자리를 떠난 '정치인 임종석'의 존재감과 무게감은 이전보다 훨씬 컸다. 국회의원과 서울시 정부부시장,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내 여권 내 '잠재적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임 실장의 다음 선택은 21대 총선 준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향후 개각 때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자기 총선 출마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지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영암,완도,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